

초등학교 3·4학년 학생의 인터넷 중독과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

이 경 숙^{1*} · 조 복 희²

¹내장초등학교 · ²전남대학교 간호대학

Relationship of Internet Addiction and School Adjustment of the 3rd and 4th Grade Elementary Students

Kyoung Sook Lee^{1*}, Bok Hee Cho²

¹*Naejang Elementary School*

²*Chonnam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Nursing*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correlation between internet addiction and school adjustment of 3rd and 4th graders in elementary schools.

Methods: The subjects were 689 graders from five schools in five districts, located in G, Korea and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April 18 to May 15, 2005. A scale consisting of 25 questions were developed as an instrument for testing internet addiction and a further 25 questions were developed for examining school Adjustment. The data was analyzed by testing frequency, percentage, means, standard deviation, t-test, ANOVA, Scheffé test and Pearson's Correlation using SPSS/PC 10.0.

Result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The degree of internet addiction tendency were 6.0% of addiction, 24.2% of borderline and 69.8% of non-addiction.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school adjustment in terms of the degree of internet addiction($F=39.88$, $p<.05$) and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the degree of internet addiction and the school adjustment; the more they used to the internet, the lower school adjustment they have($r=-.376$, $p<.05$).

Conclusion: Those graders who started using the internet at an earlier age, were found to have increased levels of internet addic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program for the prevention of internet addiction and a school adjustment education program is recommended for that.

key words: internet addiction, school adjustment, elementary student

(2007년 10월 10일 접수, 12월 10일 채택)

* Corresponding author : Kyoung Sook Lee, Naejang Elementary School, 98-1 Gumbung-Dong Jeongeup-Si Jeonbuk 580-190 Korea
Tel: 82-63-536-5761 Fax: 82-63-536-5765 E-mail: ks20300@hanmail.net

1. 서 론

현대사회는 지식 정보화 사회로 컴퓨터와 인터넷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정치, 경제, 사회뿐만 아니라 개인 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아동과 청소년들은 사이버 문화에 빠르게 적응하면서 일상생활에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즉, 인터넷을 통해 학업에 필요한 정보를 지원받고, 취미나 여가생활 및 또래간의 의사소통을 넓히는데 이용하는 등 인터넷은 일상생활의 한 부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박명순과 박성은, 2004).

2005년 6월 국내 인터넷 이용률은 만 6세 이상 인구 중 최근 1개월 이내에 인터넷을 이용한 인구의 비율이 71.9%이며, 연령별로는 6~19세의 이용률이 97.3%로 가장 높고, 이 가운데 초등학교의 인터넷 이용률은 96.2%로 거의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다(심재민 등, 2005). 학교에서도 정보화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2002년부터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정보 통신 기술 활용 교육이 주당 1시간 이상씩 의무적으로 실시되면서 이제는 저학년부터 누구나 손쉽게 인터넷을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초등학교 고학년 대상 인터넷 사용경력 중에서 3년 이상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김현지, 2004), 인터넷 처음 시작 시기가 유치원 시기 10.2%, 초등학교 1~3학년 61.4%로 나타나(고명희와 조복희, 2006),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으며 인터넷 사용 연령이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초등학교의 인터넷 사용은 학습의 일부이자 생활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다.

지나친 인터넷 사용은 일상생활의 다양한 영역에서 기능적 손상을 야기하고 있으며,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으로 인하여 심리적, 대인 관계적, 학업적, 직업적 기능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Beard, 2005; Anand & Nalwa, 2003; Young, 1999).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률은 중학생의 인터넷 중독경향(22.8%)이 실업고(17.9%) 및 인문계 고등학생(16.1%)보다 높아 발달과정상 낮은 연령에서 인터넷 중독경향이 높게 나타났다고(김광수 등, 2001). 전국 초·중·고등학생 대상 연구결과, 중독 경향군이 초등학교 29.1%, 중학교 29.6%, 고등학교 29.1%로 나타나 학교 급별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초등학교의 중독률이 고등학교의 중독률과 동일하게 나타났다(김진숙 등, 2000). 인터넷 중독경향이 높은 초등학교

는 친구관계가 원만하지 않고, 가족 간의 관계가 소원하며, 스트레스가 많고, 자기 통제력이 약한 충동적인 성격의 아동이다. 즉 심리적으로 불편한 사람들과의 관계나 학습의 중압감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공간에서 친구를 사귀고, 자신을 표현하며, 다양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등 인터넷을 통하여 심리적인 안정을 제공받고자 한다(오익수, 2003).

학교는 학생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면서 필요 한 지식과 삶의 가치 및 태도를 학습하는 곳이다. 학령기 아동에게 주어진 발달과업 중 하나는 학교생활을 잘 해내는 일이며, 특히 초등학교 과정은 가정으로부터 나와 집단속에서 사회화 훈련을 시작하는 최초의 시기이고, 대인관계가 확대되는 시기이므로 학교생활 적응은 매우 중요하다(한상숙과 지은선, 2003). 학교적응과 관련된 개인 및 가족변인 중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이는 요인은 자기 존중감, 사회성 기술, 외현화 문제로 효과적인 학교적응을 위해서는 사회적 문제해결 기술이나 대인관계 기술을 증진시키도록 도와주고 아울러 비행이나 공격성과 같은 외현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이정윤과 이경아, 2004).

학교생활에 필요한 규칙을 잘 지키고 또래나 교사와 좋은 관계를 맺는 일 들은 학교생활 정도를 판단하는 주요기준(옥경희 등, 2002)으로 초등학교의 학교생활 적응은 매우 중요하며, 청소년기나 성인기에서의 적응력을 높이는 데도 중요한 변인이다(Bagwell et al., 1998). 인터넷 중독경향이 높은 청소년은 교사와 조화롭고 긍정적인 관계를 맺는 정도가 떨어지고, 친구에 대한 관심과 학교생활에 대한 적극성이 낮으며, 수업시간에 주의를 기울이거나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학습동기가 낮아, 전반적으로 학교생활에서 자신의 행동을 적절히 통제하면서 행동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재준, 2003; 김광수 등, 2001). 따라서 지나친 인터넷 사용은 학생들의 심리적, 사회적, 학업면의 부적응을 초래하고 나아가서 문제행동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인터넷 중독 정도가 학교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인터넷 관련 연구는 인터넷 활용실태 분석(박재홍과 안귀임, 2004), 인터넷 중독의 심리적 요인(류은정 등, 2004), 인터넷 중독과 대인관계 및 사회적 지지(김광웅 등, 2004; 나동석, 2004) 등 대부분

청소년과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 인터넷 중독 연구는 미흡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초등학교 3·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 정도를 조사하고, 인터넷 중독과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를 파악하여 인터넷 사용에 대한 교육적 지도방안과 인터넷 중독 예방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인터넷 중독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인터넷 중독 정도를 파악한다.

셋째, 대상자의 인터넷 중독 정도에 따른 학교생활 적응의 차이를 파악한다.

넷째, 대상자의 인터넷 중독과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를 파악한다.

II.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G시에 소재하고 있는 132개 초등학교

가운데 5개 구에서 1개교씩 편의 표집한 후, 각 학교 별로 3, 4학년에서 1학급씩 무작위 표집법에 의해 10개 학급을 선정하여 총 68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 연구도구

1) 인터넷 중독 척도

인터넷에 탐닉해 현실세계와 가상세계를 혼돈함으로써 초래되는 인터넷 중독은 단순히 인터넷에의 몰입이나 인터넷의 과다사용과는 구분되는 개념으로 인터넷 사용과 관련해서 강박적인 사용, 집착, 재발, 내성 및 의존성, 생활상의 장애를 일으키는 증상을 말하며(강만철과 오익수, 2002),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중독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강만철과 오익수(2002)가 개발한 '한국판 인터넷 중독 척도(KIAS)'를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인터넷 중독 여부를 가리기 위한 척도로, 기존 외국 번안 도구의 결함을 극복하고 타당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한국형 인터넷 중독 척도를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검사도구이다. 이 도구에서 인터넷 중독의 구성요인은 집착, 강박적 사용, 재발, 내성 및 의존성 그리고 생활상의 장애를 포함한다(표1).

〈Table 1〉 한국판 인터넷 중독 척도(KIAS)

내 용	구성요인
1. 인터넷(게임, 채팅, 정보검색 등)은 나의 하루일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집착
2. 인터넷(게임, 채팅, 정보검색 등) 때문에 다른 해야 할 일들을 소홀히 한다.	
3. 밤늦도록 인터넷(게임, 채팅, 정보검색 등)을 한다.	
4. 친구나 가족들보다 어울리기보다는 인터넷(게임, 채팅, 정보검색 등)을 즐긴다.	
5. 인터넷(게임, 채팅, 정보검색 등)을 하기 위해 다른 일을 미루거나 포기한다.	
6. 인터넷(게임, 채팅, 정보검색 등)을 시작하면 시간가는 줄 모른다.	
7. 어떤 일보다도 인터넷(게임, 채팅, 정보검색 등)을 하는 시간이 가장 즐겁다.	
8.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오랜 시간 인터넷(게임, 채팅, 정보검색 등)을 사용한다.	
9. 인터넷(게임, 채팅, 정보검색 등)을 하지 않으면 불안하거나 초조해진다.	강박적 사용
10. 인터넷(게임, 채팅, 정보검색 등) 사용 때문에 부모나 직장상사로부터 꾸지람을 듣는다.	
11. 계속적인 인터넷(게임, 채팅, 정보검색 등) 사용으로 눈이 피로하거나 머리가 아프다.	
12. 인터넷(게임, 채팅, 정보검색 등)이 나의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어쩔 수 없다.	재발
13. 인터넷(게임, 채팅, 정보검색 등) 사용시간을 줄이려고 노력하지만 실패한다.	
14. 인터넷(게임, 채팅, 정보검색 등)을 사용하지 않으면 생활이 지루하고 재미가 없다.	내성/ 의존성
15. 기분이 우울하거나 짜증스럽다가도 인터넷(게임, 채팅, 정보검색 등)을 하면 그런 기분이 사라진다.	
16.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다른 일보다도 인터넷(게임, 채팅, 정보검색 등)을 한다.	생활장애
17. 인터넷(게임, 채팅, 정보검색 등) 사용으로 학교성적 또는 업무성적이 떨어진다.	
18. 인터넷(게임, 채팅, 정보검색 등) 사용으로 공부나 일하는데 집중력이나 효율성이 떨어진다.	
19. 인터넷(게임, 채팅, 정보검색 등) 사용으로 학교나 직장에서 고통을 받거나 손해를 본적이 있다.	
20. 인터넷(게임, 채팅, 정보검색 등) 사용으로 해야 할 과제를 못한 적이 있다.	
21. 인터넷(게임, 채팅, 정보검색 등) 사용으로 현실에서의 사람 만나는 횟수가 줄어들었다.	
22. 인터넷(게임, 채팅, 정보검색 등) 사용으로 가족과 대화하는 시간이 줄어든다.	
23. 인터넷(게임, 채팅, 정보검색 등) 사용으로 다른 사람과 약속을 어긴 적이 있다.	
24. 인터넷(게임, 채팅, 정보검색 등) 사용시간 때문에 가족들과 갈등이 있다.	
25. 인터넷(게임, 채팅, 정보검색 등) 사용시간이나 내용에 대해서 사실대로 말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는 개발자 1인, 간호학교수 1인, 현직 초등학교 교사 2인의 자문을 얻어 본 연구자가 대상자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25문항 가운데 10번 '직장상사'는 '선생님', 17번 '업무성과'는 삭제, 19번 '직장'은 '가정', 21번 '현실에서의 사람'은 '친구'로 수정하였다.

각 문항에 대하여 '그렇다'와 '아니다'로 응답하게 되어 있었으나, 본 연구 대상자가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초등학생의 이해력 수준 및 신뢰도를 고려하여 4점 Likert척도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 '약간 그렇다'에 2점, '자주 그렇다'에 3점, '항상 그렇다'에 4점을 배점하여 획득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25점에서 100점이다. 척도의 해석은 점수가 높을수록 인터넷 사용 정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비중독군, 경계군, 중독경향군으로 분류하였다. 비중독군은 25점에서 39점까지로 인터넷 사용과 관련하여 정상적인 상태, 경계군은 40점에서 55점까지로 인터넷 사용과 관련하여 중독 상태는 아니지만 중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상태, 중독경향군은 56점에 100점까지로 인터넷 사용과 관련하여 중독이 의심되거나 중독 상태임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예비조사에서 .92였으며, 본 조사에서는 .89였다.

2) 학교생활 적응 척도

학교생활 적응은 학생들이 교과활동, 학급활동, 특별활동 기타 행사 등에서 자기의 욕구를 합리적으로 해결하여 만족감을 느끼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며 교사 및 학생들과의 관계가 잘 조화되어 만족스러운 상태를 말한다(민병수, 1991).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학교생활 적응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민병수(1991)가 제작한 '학교생활 적응 척도'를 간호학교수 1인, 현직 초등학교 교사 2인의 자문을 얻어 본 연구자가 대상자의 수준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대상자의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적응 정도를 측정하며 담임교사에 대한 적응, 학교친구에 대한 적응, 학교공부에 대한 적응, 학교규칙에 대한 적응, 학교행사에 대한 적응의 5개 하위영역으로 구분된다. 하위영역별 문항 수는 각 5문항씩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

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에 1-4점을 주어,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생활 적응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예비조사와 본 조사에서 .92로 나타났으며, 하위영역별로는 담임교사에 대한 적응 .81, 학교친구에 대한 적응 .67, 학교공부에 대한 적응 .81, 학교규칙에 대한 적응 .75, 학교행사에 대한 적응 .73이었다.

3. 자료 수집 및 분석방법

2005년 4월 4일부터 4월 15일까지 초등학교 2개 학급에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본 조사는 4월 18일부터 5월 15일까지 실시하였다. 연구대상 학교의 보건교사와 담임교사에게 연구의 취지와 목적, 설문 내용 및 기록요령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한 후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배부해서 그 자리에서 응답하게 한 뒤 회수하였다. 총 732부 중 응답이 불충분한 설문지 43부를 제외하고 총 689부를 본 연구의 자료로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PC 10.0 통계처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1) 대상자의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구하였다.
- 2) 대상자의 인터넷 중독 정도는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 3)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인터넷 중독 정도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고, Scheffé test로 사후 검정하였다.
- 4) 대상자의 인터넷 중독 정도에 따른 학교생활 적응의 차이는 ANOVA로 분석하였고, Scheffé test로 사후 검정하였다.
- 5) 대상자의 인터넷 중독과 학교생활 적응과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III. 연구결과

1. 대상자의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남학생 49.5%, 여학생 50.5%였고, 3학년 47.6%, 4학년 52.4%였다. 대상자의 인터넷 사용 특성 중 인터넷 처음 시작 시기는 1학년 때 44.3%, 취학 전 41.2%, 2학년 때 11.6%순으로 초

등학교 저학년 시기인 2학년 이전에 인터넷을 처음 시작한 학생들이 97.1%였다. 사용 장소는 89.7%가 집에서 사용하고 있었으며, PC방, 학교, 친구 집 순으로 나타났다. 하루 사용시간은 거의 안함 39.0%였고, 1시간미만 34.0%, 1~2시간 19.6%로 53.6%가 인터넷을 2시간미만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인터넷 사용 목적은 온라인 게임이 51.7%로 반수 이상을 차지하였고, 과제해결(정보검색) 22.8%, 음악듣기 9.4%, 메일 5.8%, 채팅 3.3%, 카페활동 2.9%, 엽기사이트 1.2%, 기타 순으로 나타났다<표 2>.

2. 대상자의 인터넷 중독 정도

대상자의 인터넷 중독 정도는 중독경향군 6.0%, 경계군 24.2%, 비중독군 69.8%이었으며, 평균 36.8±10.03점이었다<표 3>.

3.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인터넷 중독 정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인터넷 중독 정도와 유의한 차이가 있는 변인은 성별이었으며, 남학생이 39.8±11.14점으로 여학생의 34.0±7.83점보다 높게 나타났다(t=7.90, p < .05).

<Table 2>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689)

Variables	Category	N(%)
Gender	boy	341(49.5)
	girl	348(50.5)
Grade	3rd	328(47.6)
	4th	361(52.4)
Begining period of using internet	no use	1(0.1)
	before entrance	284(41.2)
	1st grade	305(44.3)
	2nd grade	80(11.6)
	3rd grade	19(2.8)
Place of using internet	home	618(89.7)
	school	23(3.3)
	PC room	24(3.5)
	friend's house	9(1.3)
	others	15(2.2)
Using time a day	a little	269(39.0)
	less than 1 hour	234(34.0)
	1~2 hours	135(19.6)
	more than 2 hours	51(7.4)
Using content	on-line game	356(51.7)
	homework(information search)	158(22.9)
	listening to music	65(9.4)
	e-mail	40(5.8)
	chatting	23(3.3)
	cafe activity	20(2.9)
	bizarre site	8(1.2)
	others	19(2.8)

<Table 3> Degree of the internet addiction (n=689)

Category	N(%)	M±SD	range of score
Addiction tendency	41(6.0)	63.9± 7.33	56~100
Borderline	167(24.2)	45.5± 4.11	40~55
Non-addiction	481(69.8)	31.5± 4.15	25~39
Total	689(100)	36.8±10.03	25~100

4. 대상자의 인터넷 중독 정도에 따른 학교생활 적응

대상자의 인터넷 중독 정도에 따른 학교생활 적응은, 중독경향군이 62.3±13.75점으로 비중독군의 74.8±14.00점보다 더 낮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39.88, p<.05). 각 군 간의 평균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사후 검정한 결과 비중독군이 중독경향군과 경계군보다 학교생활 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 적응 하위영역에서 중독사용군일수록 담임교사(F=13.60, p<.05), 학교친구(F=16.27, p<.05), 학교공부(F=46.10, p<.05), 학교규칙(F=26.58, p<.05), 학교행사(F=33.81, p<.05) 점수가 낮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각 군 간의 평균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사

후 검정한 결과 비중독군이 중독경향군과 경계군보다 담임교사, 학교친구, 학교공부, 학교규칙, 학교행사에 대한 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

5. 대상자의 인터넷 중독과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

대상자의 인터넷 중독 정도와 학교생활 적응 간에 유의한 역 상관관계를 보여, 인터넷 중독 정도가 높을수록 학교생활 적응 정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r=-.376, p<.05). 인터넷 중독 정도와 학교생활 적응 하위영역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학교공부(r=-.415, p<.05)는 강한 역 상관관계를 보였고 담임교사(r=-.227, p<.05), 학교친구(r=-.250, p<.05), 학교규칙(r=-.304, p<.05), 학교행사(r=-.337, p<.05)는 약한 역 상관관계를 보였다(표 6).

<Table 5> Comparison of school adjustment by the degree of internet addiction

Category	Addiction tendency ^(a)	Borderline ^(b)	Non-addiction ^(c)	F	p
	(M±SD)	(M±SD)	(M±SD)		
Form teacher	13.4± 3.44	13.7± 3.85	15.3± 3.78	13.60	.001
School friend	12.2± 3.14	12.6± 2.78	14.0± 3.37	16.27	.001
School study	10.8± 3.44	11.7± 2.87	14.2± 3.58	46.10	.001
School regulation	13.5± 3.52	14.4± 3.20	16.1± 3.10	26.58	.001
School event	12.3± 3.83	13.2± 2.99	15.2± 3.32	33.81	.001
Total	62.3±13.75	65.5±11.93	74.8±14.00	39.88	.001

* Scheffé test; p<.05, (a)<(b)<(c)

<Table 6> Correlation between the score of internet addiction and school adjustment

	Internet addiction
	r(p)
School adjustment	-.376(.001)
Form teacher	-.227(.001)
School friend	-.250(.001)
School study	-.415(.001)
School regulation	-.304(.001)
School event	-.337(.001)

IV. 고 찰

본 연구는 초등학교 3·4학년 학생의 인터넷 중독 정도를 조사하고, 인터넷 중독과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를 파악하여 인터넷 사용에 대한 교육적 지도방안과 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지도하였다. 대상자의 인터넷 사용 특성을 살펴보면, 인터넷 처음 시작 시기는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인 2학년 이전이 97.1%로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초등학교 입학 전에 시작하는 비율(41.2%)도 높게 나타났다. 이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교육을 실시하여 컴퓨터와 인터넷에 쉽게 접근 가능하고 인터넷 사용연령이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상자의 인터넷 중독 정도는 총 100점 만점에서 평균 36.8점이었으며, 전체의 6.0%가 중독경향군, 24.2%가 경계군, 69.8%가 비중독군이였다. 본 연구와 동일한 척도로 인터넷 중독 정도를 파악한 선행연구와 비교해 보면 초등학교 고학년 대상 연구결과 최유엔(2003)의 중독경향집단 16.7%, 경계(판단보류)집단 35.5%보다는 낮고, 박명순과 박성은(2004)의 중독·중독의심집단 6.9%, 판단보류집단 10.6%와 이재식(2004)의 중독·중독의심집단 5.1%, 판단보류집단 15.5%보다는 높았다. 전국 초등학교 5, 6학년을 조사한 조미현과 신경선(2004)의 고위험 사용자군 5.5%,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 12.4%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초등학교 3-6학년을 대상으로 한 김선숙(2004)의 연구에서는 인터넷 중독의 범위를 초기중독자와 심각한 중독자를 인터넷 중독자로 분류하여 중독적 사용자를 37.9%라고 보고하여 본 연구 대상자와 직접 비교하는데 다소 무리가 따른다.

초등학교 3·4학년 학생을 조사한 본 연구결과가 5·6학년 학생(박명순과 박성은, 2004; 이재식, 2004)보다 인터넷 중독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난 이유는 인터넷 사용 연령이 낮아지고 있고, 학교수업이 빨리 끝나 방과 후 시간이 많으며, 학습 부담감의 저하로 컴퓨터와 인터넷을 접하는 시간이 많아 경계군이 더 높아졌으며, 인터넷 사용률의 증가가 높은 중독률로 이어졌으리라 판단된다. 따라서 인터넷을 시작하는 초기부터 인터넷 사용에 대한 규범교육을 실시하고, 과다 사용으로 인한 인터넷 중독의 위험을 인식시키며,

인터넷을 조절하면서 사용하는 습관을 키우는 예방교육과 함께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대상자의 인터넷 사용 특성에 따른 인터넷 중독 정도를 분석한 결과, 사용 장소, 하루 사용시간, 사용 목적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용 장소에 따른 인터넷 중독 정도는 PC방에서 사용할 경우 집, 학교, 친구 집, 기타에서 사용한 군보다 높았다. 이는 김주연(2002)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집이나 학교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경우 시간의 제한, 공동 사용이라는 이유 때문에 비교적 통제를 받지만, 무분별한 PC방에서 인터넷 사용은 통제가 어려워 중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하루 사용시간에 따른 인터넷 사용 정도는 2시간 이상 군이 가장 높았다. 이는 인터넷 사용 시간이 많을수록 인터넷 중독경향이 높다는 조미현과 신경선(2004)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인터넷 사용 시간이 많을수록 인터넷 중독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인터넷 사용 장소에 대한 가족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며, 자녀와 함께 인터넷 사용규칙을 만들어 사용하면 인터넷 사용시간이 감소될 것이다.

사용 목적에 따른 인터넷 중독 정도는 온라인 게임군이 가장 높았고, 음악 듣기, 과제해결(정보검색), 카페활동 군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정보형, 오락형, 통신형 세 유형으로 인터넷 이용 유형을 분류한 최병호(2004)의 연구에서 중독집단군은 오락형, 비중독집단군은 정보형이 많았고, 중독경향집단이 주로 게임·오락의 용도로 인터넷을 사용하였다는 최유엔(2003)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그리고 정보보다는 통신용도로, 통신보다는 오락적인 용도로 인터넷을 사용할수록 인터넷 중독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윤영민(2000)의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컴퓨터와 인터넷은 각 학교 및 가정에 보급되어 우리생활의 일부분이 되고 있다. 다양한 기능과 가능성을 가진 컴퓨터·인터넷을 게임 등의 오락 추구보다 학습과 정보검색 등의 유익한 활동을 통해 생산적인 도구로 활용하면 인터넷 중독률이 낮아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흥미 있고 유익한 학습 프로그램 및 자료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며, 학생들은 인터넷을 통해 즐거움과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효율적인 교육과 지도가 필요하다.

대상자의 인터넷 중독 정도에 따른 학교생활 적응을 분석한 결과, 중독경향군과 경계군이 비중독군보다 학교생활 적응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이는 인터넷 중독 정도가 낮을수록 학교생활 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해석하며 김지영과 류현숙(2003)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학교생활 적응 하위영역별로 분석한 결과 담임교사, 학교친구, 학교공부, 학교규칙, 학교행사에서 중독사용군일수록 점수가 낮게 나타났으며 각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인터넷 중독 정도가 낮을수록 담임교사, 학교친구, 학교공부, 학교규칙, 학교행사에 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해석하며 학습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담임과의 관계가 원만하여 학교생활을 즐겁게 하는 아동들이 인터넷에 덜 중독된다는 안혜영(2003)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즉, 인터넷 중독경향이 높을수록 교사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학교친구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적어지며 과제와 학습준비의 부족으로 학습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떨어질 수 있다. 또한 자기역할을 소홀히 하고 학교규칙을 잘 지키지 않으며 학교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아 전반적인 학교생활 영역에서 자신의 행동을 적절히 통제하는 능력이 낮아질 것이다.

대상자의 인터넷 중독 정도와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유의한 역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중독적인 인터넷 사용은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 부적응을 초래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초등학교 3·4학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본 연구결과만으로는 인터넷 중독이 학교생활 부적응을 가져오는 원인이 되는지, 아니면 학교생활 부적응이 인터넷 중독을 가져오는 원인이 되는 것인지를 밝힐 수는 없지만 인터넷 중독과 학교생활 부적응 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시사해준다.

대부분의 아동들은 주로 학교에서 생활하면서 많은 기회들을 경험하고 성장한다. 학교는 아동들에게 한 인간으로서 일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 가치 및 규범 등을 학습하는 장으로 개인의 사회화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다. 학교생활에 만족하며 능동적으로 참여할 때 성취감과 만족감을 경험하고 이러한 경험이 성인기 이후의 만족스러운 삶을 예측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김수진 등, 2004). 이처럼 초등학교 학교생활 적응은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건전한

성인으로 성장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므로 인터넷 중독이 학교생활 적응의 저해요인이 되지 않도록 저학년 때부터 올바른 인터넷 사용 교육이 필요하다.

이상의 결과, 초등학생들은 온라인 게임이나 과제 해결(정보검색)을 위해 비교적 빨리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었고, PC방에서 사용할 경우, 인터넷 사용률이 증가할수록 인터넷 중독률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대부분의 아동들은 학교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인터넷 중독 정도가 높을수록 학교생활 적응을 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인터넷 사용 장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인터넷을 처음 접하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올바른 인터넷 사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학교생활 적응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인터넷 중독 예방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인터넷을 처음 시작한 시기는 대다수(97.1%)가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인 2학년 이전이었고, 주로 집(89.7%)에서 사용하였으며, 하루 사용시간은 1시간 미만(34.0%)이 많았다. 사용 목적은 온라인 게임 51.7%, 과제해결(정보검색) 22.8% 순이었다.

2. 대상자의 인터넷 중독 정도는 총 100점 만점에 평균 36.8점이었고, 중독경향군 6.0%, 경계군 24.2%, 비중독군 69.8%이었다.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터넷 중독 정도는 성별($t=7.90, p<.0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인터넷 사용 특성에 따른 인터넷 중독 정도는 사용장소($F=6.35, p<.05$), 하루 사용시간($F=35.69, p<.05$), 사용목적($F=12.45, p<.0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4. 대상자의 인터넷 중독 정도에 따른 학교생활 적응의 차이는 비중독군이 중독경향군과 경계군보다 학교생활에 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F=39.88, p<.05$), 대상자의 인터넷 중독 정도와 학교생활 적응은 유의한 역 상관관계를 보여 인터넷 중독 정도가 높을수록 학교생활 적응 정도는 낮았다($r=-.376, p<.05$).

이상의 연구결과, 초등학생들은 게임이나 학교과제

를 해결하기 위하여 비교적 빨리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었고, 인터넷 중독 정도가 높을수록 학교생활 적응 정도가 낮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인터넷 사용률이 증가할수록 인터넷 중독률 또한 높아질 것이 예측되므로 가정이나 학교에서의 적절한 통제와 함께 학교생활 적응을 포함한 인터넷 중독 예방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인터넷 사용연령이 낮아지고 중독경향도 저연령화 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인터넷 사용과 이와 관련된 다양한 변인들에 대한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2) 본 연구는 자기보고식 설문 방식으로 대상자의 무성의한 응답을 가려내기 어렵고 초등학교의 질문 이해와 판단 및 응답에 정확성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관찰법이나 면접법 등의 질적 방법을 통해 개인별 인터넷 중독 정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3) 본 연구에서 사용된 인터넷 중독 척도는 청소년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척도이기 때문에 초등학교생에겐 이해의 수준으로 인한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초등학교 대상 인터넷 중독 척도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표집 대상이 특정 지역의 특정 아동만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므로 연구의 결과를 전국의 초등학교생에게 일반화하는 데는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참 고 문 헌

- 강만철, 오익수 (2002). 청소년 인터넷 중독 진단 척도 개발(Ⅱ). *교육심리연구*, 16(4), 247-274.
- 고명희, 조복희 (2006). 초등학교 5·6학년 학생의 인터넷 중독과 스트레스 대처행동과의 관계. *한국학교보건학회지*, 19(1), 45-54.
- 김광수, 장승현, 조병만, 임을미 (2001). 청소년 인터넷 중독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 *교육논총*, 16, 301-333.
- 김광웅, 유미숙, 이지향 (2004). 인터넷 중독 여부에 따른 온라인대인관계 성향과 대면대인관계 성향의 차이. *아동학회지*, 25(2), 109-120.
- 김선숙 (2004). 초등학교생의 인터넷 중독과 학교생활 적응 실태 분석.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9-55, 청원.
- 김수진, 이정숙, 최봉실 (2004). 지역사회 청소년정신보건사업 모형 개발을 위한 학교적응유연성 영향요인 연구. *정신간호학회지*, 13(3), 291-303.
- 김재준 (2003).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학습동기 및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0-57, 익산.
- 김주연 (2002). 초등학교생의 인터넷 중독경향과 관련요인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5-36, 서울.
- 김지영, 류현숙 (2003). 학령기 아동의 인터넷 중독과 가정환경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초등학교 5·6학년 아동들을 중심으로-. *아동간호학회지*, 9(2), 198-205.
- 김진숙, 최수미, 강진구 (2000). 청소년의 PC중독, 설문조사결과: 청소년의 컴퓨터 활용실태. 59-86,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김현지 (2004). 어머니의 양육행동특성들과 초등학교 아동의 인터넷 사용과의 관계. *한국생활과학회지*, 13(6), 861-874.
- 나동석 (2004). 청소년의 비행성향과 사회적 지지가 인터넷중독경향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1(3), 23-42.
- 류은정, 최귀순, 서정석, 남범우 (2004).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우울, 자살사고와의 관계연구. *대한간호학회지*, 34(1), 102-110.
- 민병수 (1991). 학교생활적응과 자아개념이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7-19, 서울.
- 박명순, 박성은 (2004). 초등학교 아동의 인터넷 몰입과 사회능력 및 행동발달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18(1), 313-327.
- 박재홍, 안귀임 (2004). 초·중학생의 인터넷 활용 실태 분석. *동의논집*, 40, 91-104.
- 심재민, 조찬형, 양효진, 안인희, 김정림 (2005). 2005년 상반기 정보화 실태조사[Online]. Available: <http://isis.nida.or.kr/>[2005. 10. 1]

- 안혜영 (2003). 초등학생의 인터넷 게임 중독과 감성 지능 및 학교생활 적응간의 관계.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3-48, 서울.
- 오익수 (2003). 초등학생 인터넷 중독의 심리적 요인. 상담학연구, 4(3), 513-529.
- 옥경희, 김미혜, 천희영 (2002). 조절력과 부정적 정서 및 문제행동이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6), 61-68.
- 윤영민 (2000).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 : 분석모형의 개발. 정보와 사회, (2), 133-153.
- 이재식 (2004). 초등학생의 인터넷 중독과 우울과의 관계.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3-28, 광주.
- 이정윤, 이경아 (2004). 초등학생의 학교적응과 관련된 개인 및 가족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2), 261-276.
- 조미현, 신경선 (2004). 초등학생의 인터넷 중독현황 및 원인. 컴퓨터교육학회논문지, 7(5), 45-56.
- 최병호 (2004). 초등학생의 인터넷 사용이 학교 및 개인생활에 미치는 영향. 춘천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9-55, 춘천.
- 최유연 (2003). 초등학생의 인터넷 중독과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6-36, 서울.
- 한상숙, 지은선 (2003). 학령기 아동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교생활적응정도 예측요인:5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간호학회지, 14(4), 707-716.
- Anand, A.P., Nalwa, K. (2003). Internet Addiction in Students: A Cause of Concern. CyberPsychology & Behavior, 6(6), 653-656.
- Bagwell, C.L., Newcomb, A.F., Bukowski, W.M. (1998). Preadolescent friendship and peer rejection as predictors of adult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9(1), 140-153.
- Beard, K.W. (2005). Internet addiction: A Review of Current Assessment Techniques and Potential Assessment Questions. CyberPsychology & Behavior, 8(1), 7-14.
- Young, K.S. (1999). Internet Addiction: Symptoms, Evaluation, And Treatment. In L. VandeCreek & T. L. Jackson(Eds), Innovation in Clinical Practice: A Source Book, 17, 19-31. <http://netaddiction.com/articles/symptoms.htm>